

21세기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민간 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 주>

정보통신정책국(천창필 정책총괄과장)

지식정보강국 e코리아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2005년 세계 3위권 IT강국 진입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IT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 IT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해외거점을 한국 IT 역량강화에 총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IT산업을 국내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출산업의 근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IT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통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보화기획실(남궁민 기획총괄과장)

정보화기획실은 현 정부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촉진하는 데 모든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 및 정치, 문화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토대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고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온 국민의 역량이 모아지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화 및 정보환경의 고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범 정부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보통신지원국(이기주 통신기획과장)

우선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원만하게 선정해 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 최근 급성장세를 타고 있는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신규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무선 통신환경의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고 통신사업 분류 및 역무 구분 체계도 업계실정과 서비스환경에 맞게 손질할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국제협력관실(장광수 협력기획담당관)

국제통화기금(IMF)은 2001년 미국의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EU 및 개도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의 경기연착륙, 일본의 경기회복, EU 및 아시아 등 개도국의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4.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년 1~2월 수출증가율이 6% 대로 회복되는 등 7%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CDMA 장비수출 증가, 중동 중남미 SI 수출증가, 휴대폰 단말기 수출증가 등에 따라 2001년도 국내 IT산업의 수출은 580억 불로 16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망된다.

올해 1월~2월간 IT교역동향은 같은 기간동안 IT산업 무역수지 보다 21.3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2억불 증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IT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해외 IT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중국, 몽골, 인니 등 주요 핵심거점 시장에 대한 집중지원, ▲정부차원의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IT업체의 해외진출지원, ▲해외 IT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기반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금융지원 확대, ▲중소 IT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진출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협업체 구성 등이다.

정부는 IT 산업 수출의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위와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금년도 수출목표인 580억 불(무역수지 160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전파방송기획과(이근협 전파방송기획과장)

2001년도 전파방송분야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파통신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체제를 정립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전파통신(IMT-2000 TDD, 지능형교통시스템(ITS), 5GHz대 초고속 무선접속망, 블루투스 등 향후 5년 내 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기반(New Radio Infra)용 주파수 이용정책 수립 및 적기 분배,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대화형·디지털 방송시대 선도, ▲전파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위성통신 기술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전파환경 약화, 이용질서 문란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대책 적극 추진 등이다.

올해 정보통신 산업 전망 (금기현 전자신문 IT 산업 부장)

정보통신산업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지만 국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올해에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또한 정부도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주도 대형프로젝트 발주(2001년 예산(1조689억원) 70%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21세기 비전으로 정보통신강국 실현 목표 등 육성의지 또한 대단하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 입어 올해 정보통신 산업은 ▲e 비즈니스 사업 확대, ▲무선인터넷 모바일 커머스 수요증가,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그룹웨어 보안 관련 제품 수요확대 등 S/W산업의 활황,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 IMT 2000 특수에 따른 산업의 활황 등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지원방안(김광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장)

첫 번째 차세대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핵심부품 등 정보통신 전략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진흥과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과제로는 차세대인터넷, 정보보호,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가전 등 8대 전략사업과 핵심부품 및 원천기초 등 2대 기반분야 기술개발이다.

지원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단체, 대학 및 부설연구소,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지원범위는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기초·기반기술연구의 경우 100%, 산업적 연구인 경우 75%, 경쟁전단계의 연구인 경우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4월까지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3,108억원이다.

두 번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는 정보통신 기업체를 중심으로 신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지원,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망분야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개발 지원하는 한편, 경쟁 전 단계의 시제품 개발 지원과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에 의한 개발과제(단독, 공동)를 선정한다. 지원분야는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 정보통신서비스, S/W 관련 분야이며, 지원대상 정보통신 분야 기업 및 대학,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조합 등이며, 단,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에 한하며, 중소기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우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은 정부와 수행기업의 공동부담(총 연구개발비의 50%이내에서 차등 지원)으로 한다. 수시접수, 분기별 선정 지원(3, 6, 9, 12월말 접수마감)할 예정이며, 올해 예산은 200억원이다.

세 번째, 창의적 아이디어나 관련법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시제품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우수기술 지정 지원사업은 개인(개인사업자)이나 법인설립 후 3년 내의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우수기술지정 통지서 발급, 시제품개발비(1년 이내 1억원 범위)지원, 창업보육시설 지원, 제품전시 및 홍보,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IT마크의 사용 등을 지원한다. 수시 접수(3, 6, 9, 12월말 접수마감)하여 분기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100억원이다.

네 번째, 융자 사업으로는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450억원, 연6.0%),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2,300억원, 5.25~5.75%), ▲중대형 컴퓨터 보급 지원사업(240억원, 연6.0%), ▲선도 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1,200억원, 5.25~5.75%), ▲멀티미디어산업 지원사업(1,260억원, 연6.0%)등이 있으며, 올해 5월 까지 1차 사업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을 할 예정이다.

융자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지원대상은 기업체, 단체 등 자격제한은 없으나, 멀티미디어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정보통신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자금지원과 기술 지원은 물론 판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 등의 심사를 수시접수 및 월별 1회 평가를 실시하여 벤처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IT Power 2005(허문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사회로, IT 인력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다. 인도, 이스라엘 등은 풍부한 IT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IT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 국은 IT 인력 육성 및 해외인력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말 산업체중사 IT인력은 58만 8,000명이며, 이후 연평균 4.9%씩 늘어나 2005년에는 75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부족인원은 14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향후 5년간 IT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실무중심의 IT교육 확대, ▲글로벌 교육훈련체제 구축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재 육성 방안을 통하여 IT인력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교육기관의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배출인력의 현장적응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및 전략적 산업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특성화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S/W ·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정책 제언 (신상철 한국전산원 부장)

국내 산업의 수요기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콘텐츠를 통한 정보획득 마인드나 분야별 콘텐츠의 활용체계 및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 획득한 지식 정보의 재이용 및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에 내재된 실질적인 경제가치가 계량화되지 않아 정보의 저가 비용책정과 정보의 잠재적 경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통로의 다양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보편적 확보 방안 강구, 콘텐츠 수요기반의 확충은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통체계 기반 측면에서는 공정경쟁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신뢰성있는 온라인 거래문화 정착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 부여 및 적극 장려가 필요하다.

산업기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S/W, 콘텐츠 산업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아이디어의 교류, 기술 습득, 이용자 수요파악, 시장 개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품질평가 체제가 미약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

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각종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산업의 질적 양적 측정을 도모하고 정확한 평가 지표로서 제공하거나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활용 및 정보공유, 표준화 및 보급 활성화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준의 초고속통신망, 장비 제공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 정보 제공, 개발의욕 고취 정책, 표준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영구조 측면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리스크가 크며, 서비스를 개시한 후 투자비용 회수 및 손익 분기점 도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지속적인 갱신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구축된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마케팅 능력이 미약하며 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전략 수립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영세성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선진국 견학, 연수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경영전략 수립의 노하우 지원,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 채널을 형성하는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S/W·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내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사업자의 수익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민간이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 유료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보와 제품을 생산, 활용하여 국내 IT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정부 부처간의 협조 및 공조체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KT와 E-Biz 연계 사업자간 공동 발전 방안(구본철 한국통신 팀장)

솔루션업체와의 공존 전략으로는 e-Government 사업 적극 참여, 솔루션 업체와 이용자간의 유통 플랫폼(Platform) 구축, 우수 솔루션 업체에 자본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중소IDC 사업자와는 KT-IDC 망 전국 확대, 중소 IDC 업체의 Virtual IDC 화, 글로벌 IDC 공동 추진 등의 사업상 공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ISP와 유무선 콘텐츠 플랫폼 사업 공동 협력도 추진 중이며, CP와의 공존을 위해서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 신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콘텐츠 신디케이터(syndicator) 육성 등의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다.

- 위 설명회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ait.or.kr)나 협회 산업진흥팀 (전화: 02-580-05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